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90% 이하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상세 운용전략을 활용하여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치주에 주로 투자하며 주식시장 하락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주식 편입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41억 원

펀드유형 혼합주식형, 중류형, 개방형, 추가형
-주식 편입비 : 90% 이하

설정일

(운용펀드 : 2018년 03월 27일)

- 클래스 A : 2018년 03월 27일
- 클래스 A-E : 2018년 03월 27일
- 클래스 C : 2018년 03월 29일
- 클래스 C-E : 2018년 03월 27일
- 클래스 C-F : 2018년 03월 27일
- 클래스 C-P(퇴직연금) : 2018년 05월 23일
- 클래스 C-P(퇴직연금)E : 2018년 05월 23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18년 05월 28일

벤치마크 없음

참조지수 KOSPI 80%+Call 20%(참조지수)

신탁업자 국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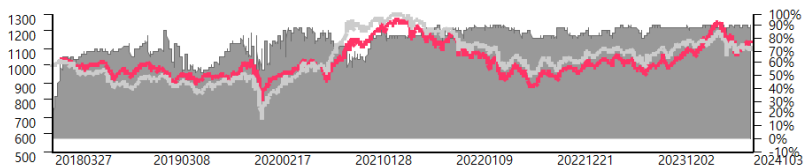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2.86%	-6.71%	3.07%	20.06%	23.29%	-1.96%	20.17%	12.00%
클래스 A	2.73%	-7.07%	2.31%	18.35%	19.73%	-6.25%	11.53%	1.51%
클래스 A-E	2.76%	-6.99%	2.49%	18.76%	20.56%	-5.25%	13.52%	3.90%
클래스 C	2.70%	-7.14%	2.18%	18.05%	19.10%	-7.00%	10.04%	-0.28%
클래스 C-E	2.75%	-7.02%	2.42%	18.60%	20.24%	-5.63%	12.75%	2.97%
클래스 C-F	2.79%	-6.91%	2.65%	19.12%	21.33%	-4.33%	15.38%	6.14%
클래스 C-P(퇴직연금)	2.72%	-7.10%	2.26%	18.24%	19.50%	-6.53%	10.98%	-1.55%
클래스 C-P(퇴직연금)E	2.75%	-7.00%	2.47%	18.70%	20.44%	-5.39%	13.25%	1.06%
클래스 C-P2(연금저축)	2.72%	-7.11%	2.25%	18.20%	19.41%	-6.63%	10.75%	-0.18%
참조지수	-1.08%	-5.95%	-3.55%	10.77%	11.12%	-9.11%	22.05%	8.46%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판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작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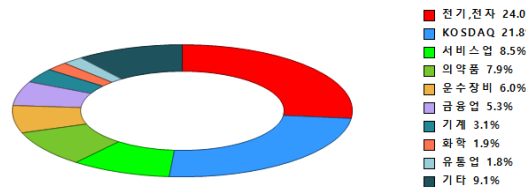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4년 10월말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4년 10월말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13.8	휴젤	제약	2.4
SK하이닉스	전기,전자	8.9	현대모비스	운수장비	2.4
셀트리온	의약품	4.9	테크윙	기계,장비	2.3
두산에너지리티	기계	2.8	하나금융지주	금융업	2.3
더존비즈온	서비스업	2.5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오락,문화	2.1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적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중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4825% (판매 0.7%)
- 클래스 A-E : 총 연 1.1325% (판매 0.35%)
- 클래스 C : 총 연 1.7525% (판매 0.97%)
- 클래스 C-E : 총 연 1.2675% (판매 0.485%)
- 클래스 C-F : 총 연 0.8125% (판매 0.03%)
- 클래스 C-P(퇴직연금) : 총 연 1.5825% (판매 0.8%)
- 클래스 C-P(퇴직연금)E : 총 연 1.1825% (판매 0.4%)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1.6325% (판매 0.85%)

(공통사항)

운용 0.75%, 신탁 0.02%,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 납입금액의 1.0% 이내
- 클래스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0월 KOSPI는 전월 대비 1.43% 하락한 2,556.15pt, KOSDAQ은 2.73% 하락한 743.06pt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고성장 지표 호조와 중국 부양책 발표 기대감으로 상승하며 출발한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가 예상 대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자 외국인 투자자의 공격적인 매도가 이어지며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및 양호한 성장률 전망을 근거로 10월 금통위에서 25bp 인하 단행했으나, 내수 경기 및 가계 대출에 대한 우려를 표현해 시장은 다소 혼재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금리 인하 사이클 구간에서 견조한 이익 성장을 나타내는 기계, 증권, 보험, 엔터투어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방 수요 부진 우려에 따라 화장품, 자동차, 전자부품, 화학 등 경기민감업종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월 대비 약세를 나타내며 1,383.3원으로 마감했고, WTI 기준 유가는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며 69.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동기간 국내 기관투자자는 76억원, 외국인투자자는 4.7조원을 순매도했으며 개인투자자는 4.4조원 순매수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11월 국내 증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전월 대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10월 비농업고용은 허리케인, 운송업체 파업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부진했으나, 실업률 및 노동부 고용지표는 지속적으로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10월 물가지표 또한 전월 대비 완만한 상승폭을 유지하며 미국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증시의 하방 경직성은 전월 대비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한국 10월 수출은 전년 대비 4.6% 성장하며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고 일평균 수출금액이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수출주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미국 빅테크 기업의 투자 계획이 상향 조정되며 시관련 반도체 및 전자부품 수출은 타 업종 대비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하반기 국내 증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의 2025년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며 국내 증시는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10월 수출은 57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주요 IT 제품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의약 등 한국의 핵심 주력 품목 또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수출 동향을 감안한 11월 목표 KOSPI 지수는 2,670pt 수준으로 예상되며 미국 대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 등 시장 내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으나 현재 증시 레벨은 이를 반영한 저평가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해당 불확실성은 11월 미국 대선 이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언론 보도상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가능성은 과거 대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증시는 해당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국인 중심의 가파른 순매도로 인해 나타난 주가 조정으로 인해 국내 증시는 저평가 매력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하락폭이 컸던 업종 및 종목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스닥 업종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나타난 부정적 투자 심리로 코스피 대비 하락폭이 컸던 점을 감안하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업종 및 종목에 대한 비중을 상향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IT 수요 부진에 따른 세트 업체들의 재고 부담 확대, 반도체 현물 가격 하락, AI 수요 둔화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미국 빅테크의 Capex 지출 계획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어 HBM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비중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미국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주가 조정이 나타났던 의약 업종에 대한 비중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2025년 BTS, 블랙핑크 등 대형 아티스트들이 복귀함에 따라 실적의 턴어라운드 기대되는 엔터 업종에 대한 비중을 상향하여 추가적인 알파소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국 관련 경기민감주의 경우에는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고 시장 기대치 대비 실적 개선 속도가 낮아 비중을 단기간 내 빠르게 확대하기 보다는 가동률 동향, 제품 가격 동향, 업체별 실적 흐름을 지속적으로 확인 후 점진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중국 경기부양책 실시에 대해서는 시클릭 업종 보다는 중국 소비 관련 업종에 대한 비중을 상향하여 대응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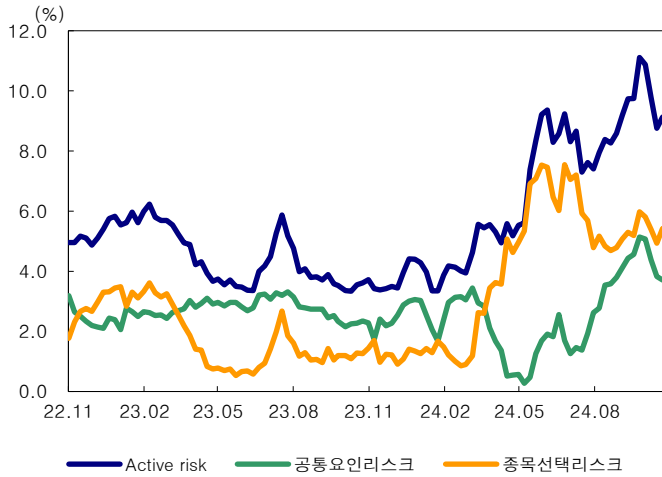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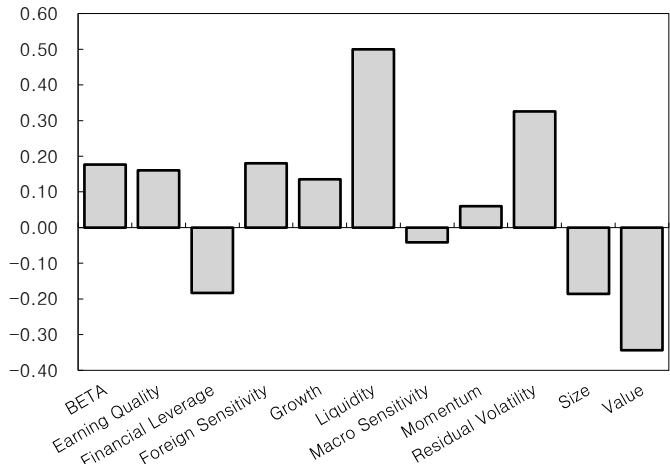
	2024-10-31	2024-09-30
Active Risk ¹	9.65%	11.27%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²	3.64%	5.18%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2.56%	3.87%
- 섹터 리스크 기여도	1.09%	1.31%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³	6.01%	6.09%
베타	0.88	0.89

1. Active Risk는 참조지수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참조지수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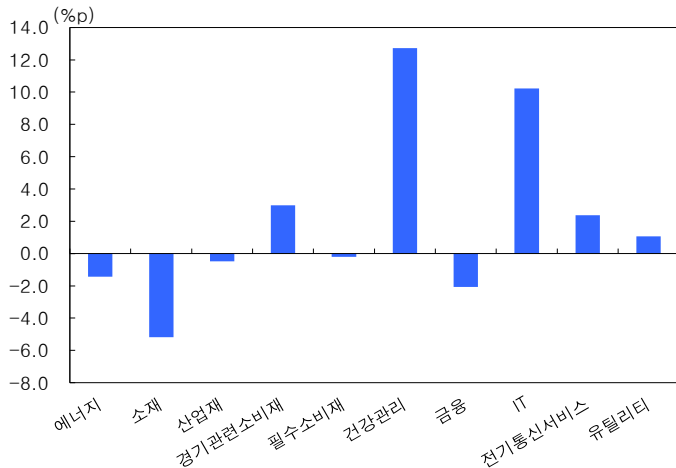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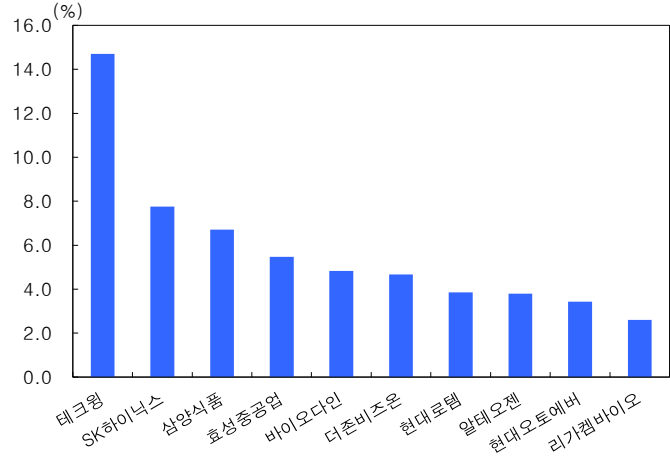
<참조지수 대비 스타일 비중차>



<참조지수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9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10월말 현재, 이스트프링코리아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펀드의 Active Risk는 9.65%로 전월대비 감소하였습니다.
- ▶ 종목수는 전월대비 8개 종목 증가하여, 56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참조지수 대비 '금융', '경기관련소비재'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건강관리', '산업재'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9월말 기준으로는 'SK하이닉스'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테크윙'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감소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 동펀드는 'Value'보다는 'Liquidity'가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